

노래로

아름다운 기부... 세상 밝혀준다

장학금으로

보아,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로고송 기부

작사·작곡·노래하며 홍보

한류스타 가수 보아(BOA)가 오는 9월 개막하는 '2013광주디자인비엔날레' 로고송을 부른다. 광주비엔날레와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로고송이 만들어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보아는 문화기부 형식 이번 로고송 제작에 참여했다.

27일 광주비엔날레재단에 따르면 오는 9월6일~11월3일 열리는 '2013광주디자인비엔날레' 홍보를 위해 사용할 로고송을 보아가 작사·작곡, 노래한다.

비엔날레재단은 예술성과 상업성을 접목한 광주디자인비엔날레와 국민들에게 친숙하고 밝은 이미지로 자리매김한 보아의 이미지가 적합하다고 판단해 로고송 제작을 요청했고, 이에 보아의 소속사인 SM측과 보아가 흔쾌히 수락하면서 지난 3월 협약이 성사됐다.

보아는 바쁜 일정 속에도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로고송 작사·작곡 전 과정에 참여, 최근 데모 버전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로고송은 싸이의 '젠텔맨'과 같은 일렉트 로니 댄스 뮤직으로, 강렬한 비트와 중독성 있는 후렴구의 반복이 인상적이라고 비엔날레재단은 전했다.

비엔날레재단은 이번 로고송 제작을 계기로 디자인비엔날레 행사 때마다 로고송을 제작, 관람객들의 관심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보아는 "국제적인 디자인 축제인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로고송 제작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다"며 "로고송이 대중들에게 편안하게 다가가고 디자인의 매력을 알리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비엔날레재단 관계자는 "국제적인 스타인 보아가 공익적인 국제 문화 행사에 '재능기부' 형식으로 참여해 제작한 로고송이어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No.1' '아틀란티스 소녀' 'My name' 등 히트곡을 낸 보아는 최근 SBS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K팝스타 시즌2'에 출연 화제를 모았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자수성가 50대 고향 담양에 3억원 기탁

"어려운 학생위해 써달라"

어려운 가정환경을 딛고 자수성가한 50대 사업가가 고향인 담양군에 장학금 3억원을 쾌척하고 세상을 떠났다.

26일 담양군에 따르면 무정명 성도리 출신으로 올해 초 세상을 떠난 최두호(황년 58세)씨 가족들이 최근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써달라며 3억원을 기탁했다.

5형제 가운데 차남인 최 씨는 집이 가난해 학교조차 제대로 다니지 못한 채 어렸을 때부터 부산에 가서 일을 시작했다.

성실한 성품의 최 씨는 냉장고 모터를 만드는 금형업에 뛰어들어 광주 하남산단과 경기도 안성, 경남 창원, 중국 등에 공장 5곳을 운영하는 (주)BMC의 대표로서 중견기업을 이뤘다.

생전 고향인 담양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오던 그는 올해 초 지방인 담양으로 투병하던 중 숨졌다.

최 씨의 가족들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고향 후배들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



최두호씨 가족들이 최형식 담양군수에게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써달라며 장학금 3억원을 기탁하고 있다. <담양군 제공>

고 싶다는 고인의 뜻에 따라 3억원을 담양군에 기탁했다.

담양군은 최근 기부심사위원회를 열어 최 씨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와 최두호 장학금'을 운영하기로 했다. 장학금 관리(재)담양장학회에 맡아 지원대상자 선별기준, 운영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학금은 내년 6월부터 발생하는 이자 수입으로

지역 초등학교들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최 씨의 가족들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더 많은 학생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 조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양군 관계자는 "고인의 뜻에 따라 어려운 학생을 돕는 데 소중하게 쓰겠다"고 말했다. /정재근기자 jig@kwangju.co.kr

"5·18 학살 부인 처벌법 제정을"

전남대 학술대회... 고려대 김정한 교수 왜곡 대응책 제안

5·18의 학살을 변호하고 정당화하는 행위에 대해 적법하고 정당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김정한 교수는 전남대 주최로 지난 26일 4·19혁명기념도서관에서 열린 '한국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해결방안 모색' 학술대회에서 '학살 부인 처벌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역사 왜곡을 하찮게 치부하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일일이 반박하고 바로 잡는 작업이 필수적"이라며 "가능하다면 '학살 부인 처벌법'을 제정해 5·18의 학살을

변호하고 정당화하는 행위에 법적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 자리에서 5·18 왜곡의 정치적 함의를 다스리자고 강조했다.

전체적으로 계엄군의 잔인한 진압과 민행·학살 등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무장봉기를 준비한 지하 배후세력을 끌어들이고 그것을 오히려 정당화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고, 시민들의 죽음이 계엄군의 가해 때문이 아니라 시민군의 가해 때문이라고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5·18 참가자 대부분이 외국인이나 미성년자가 많았다고 주장함으로써 광주시

민이 주체가 아니었다고 역지 주장을 펴고, 일부 탈북자의 신빙성 없는 증언을 제외하면 전혀 근거가 없는 북한군 침투론을 주장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시민군의 선제발포론을 내세워 계엄군의 집단발포를 변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명대 영상콘텐츠학과 주진오 교수는 '역사 우경화를 통한 근현대사 왜곡 실태'를 주제로 일본과 한국의 역사 우경화 과정을 분석했다. 주 교수는 한일 역사 우경화 세력의 공통점으로 '현 보수세력의 역사적 정통성 확립 노력', '과거에 대한 반성은 자학사관으로 매도', '역사교과서 논쟁으로 시작해 직접 교과서 제작', '합리적 보수세력의 침묵과 방조' 등을 꼽았다. /최희정기자 chae@

광주 각계 "임을 위한..." 기념곡 지정 정부가 나서라"

광주지역 각계 단체와 주요 인사는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이제는 정부가 기념곡 지정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강은태 광주시장과 5·18왜곡 대책위원회는 환영 공동 성명을 내고 "국회 본회의의 결로 임을 위한 행진곡은 시비 및 논란이 종식돼야 한다"며 "내년 제34주 5·18기념행사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할 수 있길 바란다"고 기념곡 지정을 촉구했다.

민중당 광주시당도 성명을 내고 "결의안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국가 보존처는 5·18 광주민주화 운동 34주년 기념식 공식 추모곡으로 지정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DJ센터, 3년 연속 적자·자본잠식

안행부, 지방공기업 결산

광주도시공사 5년 연속 흑자

광주·전남 30개 지방공기업 중 김대중컨벤션센터가 유일하게 3년 연속 적자와 자본잠식기업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았다.

반면 광주시도시공사와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 광양시공영개발은 5년 연속 흑자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안행장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국 251개 지방직영기업과 59개 지방공사, 78개 지방공단 등 388개 지방공기업의 2012년 결산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388개 지방공기업중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곳은 38.1%인 148개였으며, 이중 90.5%인 134개는 시민생활과 직결된 상·하수도나 도시철도 관련 기업이었다.

김대중컨벤션센터는 2010년 20억원, 2011년 19억원, 2012년 17억원 등 3년동안 56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김대중컨벤션센터는 특히 1308억원의 자본금이 1129억원으로 줄어드는 등 자본 잠식이 13.7%에 이르렀다. 이처럼 자본잠식이 발생한 지방공기업은 전체의 8%(32개)에 불과했다. /박진표기자lucky@

이 밖에 전국 7개 도시철도공사는 모두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으며, 여기에는 3721억원에 이르는 무임승차 손실의 영향이 컸다.

반면 우수경영사례로 꼽힌 5년 이상(2008~2012년) 흑자기업은 전체 공기업의 17% 수준인 68개였으며, 광주시도시공사(128억원)와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157억원), 광양시공영개발(262억원), 순천시상수도(101억원) 등이 포함됐다. 또, 광주·전남 등 전국 15개 시도 지역개발기금도 5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지난해 전국 지방공기업들은 1조5008억원의 적자를 보 2002년 통계집계를 시작한 이후 사상 최대의 경영손실을 기록했다.

광주·전남 공기업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광주시의 7개 공기업 부채는 2012년 9782억원으로 410억원의 적자를 봤으며, 전남도의 23개 공기업 부채는 1조9190억원으로 지난해에만 1135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안행장정부는 이 같은 지방공기업의 부채 상상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 후 내부 투자심의위원회와 이사회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받아 추진토록 지난 4일자로 지방공기업법을 개정·공포했다. /박진표기자lucky@

전남개발공사 5대 사장에

전승현 전 도건설방재국장



전남개발공사 5대 사장에 전승현 전 전남도건설방재국장이 내정됐다. 전 내정자는 지난해 1월부터 직전까지 전

남도체육회 사무처장을 역임했다. 전 내정자는 1973년 함평군에서 토목직으로 공직에 입문한 후 광양시 향만도시국장, 전남도 도로교통과장, 건설방재국장도 체역회 사무처장을 거쳤다.

전 내정자는 신원조회 등을 거쳐 다음달 초에 임명되며 임기는 3년이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북경당 한의원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코피 해결
비만클리닉 한의원 박사 박상준 원장
동신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KT ● 중앙초교 ● 금남로
계림동 ● 주재명교 ● 고객 주차장
대한생명 ● 구.한미소방 ● 동부소방서
북경당 한의원

진료문의 062)227-7575 진료시간
평 일 : 오전9시~오전7시
토요일 : 오전9시~오전4시
일요일휴진,공휴일은 오전전료

●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2013-0-269호

사 원 모 집

사계절 푸르른 양산다. 친환경 나비의 고향 함평다이너스티 CC에서 함께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 모집부문
 - 웨이터, 웨이츄레스, 주부사원(신입 및 경력) 0명
 - 조리사 0명
- 자격요건
 - 고졸이상 학력 취득자
 - 경력자 우대
- 급 여
 - 연봉제 1,900만원이상(퇴직금 별도)
 - 경력자 면접 후 결정(이력서 우측상단에 희망연봉 기재)
- 복리후생
 - 4대보험 가입, 숙식제공, 각종 수당 지급, 경조사지원, 우수사원포상, 단체상해보험가입, 교통비 지급 등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전형방법

- 우편 및 이메일, 방문 접수
- 접수기간 : 총원시까지(총원시 조기마감)
- 서류접수 후 면접일자 개별통보

접수처

- 주 소 :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산1-6
- 담 당 : 경영지원팀 오승태 부팀장
- 전 화 : 061)320-7717
- 팩 스 : 061)320-7710
- 이메일 : seungtae01@naver.com

함평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1 시공전 / 단열베이스기판시공 2 단열베이스기판 / 트라이슈머시공 3 트라이슈머 발포형 시공 4 시공 후

특허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시험회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트라이슈머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단열복합시트

하자없이 20년은 너뿐이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태양열차단 냉기차단
여름철 실내온도 3~5°C 겨울철 실내온도 3~5°C
전기료 30~40% 난방비 15~20%
냉방비 절감 난방비 절감

냉·난방문제! 방수와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사 전속모델
탈런트 이영후

IPALG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